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보성군, 제58회 전남도 체육 대회 축하공연 라인업 공개

싸이·인순이·거미·남진·박현빈·김연자 등 11개 팀 출동

보성군이 오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식 축하공연 라인업을 발표했다.

4월 20일 18시 보성공설운동장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싸이, 우주소년, 인순이, 거미, 남진, 박현빈, 김연자 등 11개 팀의 아티스트들이 참가해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이번 라인업은 케이팝 스타에서 아이돌 발라드 가수, 성인가요, 트로트까지 전 장르를 망라해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전남도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고,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펼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싸이는 세계를 사로잡은 매력으로 글로벌 팬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 K-pop을 알리는 데에 큰 기여를 한 스타이기도 하다. 강남스타일은 32억뷰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고 각종 페러디 영상을 낳으며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흙뻘쇼', '울나잇스탠드' 등 여름과 겨울에 진행되는 싸이의 공연은 전 지역에서 매진 행진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티켓과워를 자랑한다. 관객들이 지쳐 먼저 나가거나, 첫차가 올 때까지 콘서트를 연장하는 등 넘치는 에너지로 관객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가수 싸이가 이번 개최식에서도 어떤 에너지로 전남 도민을 열광하게 할지 기대되는 이유다.

한편,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보성군 일대에서 펼쳐지며 22개 시·군 육상, 태권도, 검도, 축구, 골프 등 22개 종목 6,000명의 선수들과 관람객 등 총 3만여 명이 운집하는 전남도 최대 행사다.

이외에도 아름다운 밤을 수놓을 불꽃쇼와 레이저쇼가 준비돼 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질서 유지를 위해 당일 오전 무료입장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군, '농촌지도시범사업' 대상 농가 교육 실시



영광군은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농촌지도시범사업자로 선정된 118명을 대상으로 사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6일 영광군농업인대학동심회의를 통해 선정

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추진요령과 유의사항, 보조사업 추진 집행절차 및 사업비관리요령,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작성요령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농촌지도시범사업은 농촌진흥기

관이 개발한 농업신기술 보급의 현장 확산과 현장기술의 실용화 및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지역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하는 사업이다.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시범사업으로 새로운 기술과 여러 시범요인이 투입되어 농가 기술수준 향상과 농업인 경쟁력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시범사업은 발작물 관계시스템시범사업 등 4개 분야 29개 사업 118개소에 14억 7천만원이 투입된다.

김준성 군수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을 주변 농가에 널리 보급하여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순천의 멋 찾는 '2019 순천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순천시에서는 지역의 전통과 역사, 문화 등 순천 고유의 특징을 알릴 수 있는 2019 순천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순천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콘텐츠를 소재로 순천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계속 생산이 가능한 완성된 관광기념품이다.

순천시는 지난 5일자로 공모전에 대한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4

월 10일부터 12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한다.

수상작 발표는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홈페이지(www.suncheon.go.kr) 및 순천시청 관광과(061-749-5790)로 문의하면 된다.

입상자에게는 대상(1명) 500만원, 금상(1점) 300만원, 은상(1점) 250만원, 동상(2점) 각 200만원, 장려상(3점) 각 100만원, 입상(4점) 각 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입상작은 오는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특별 전시전을 열어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순천시 대표 관광기념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순천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계기로 순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홍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상품화를 통한 관광소득 연결로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매화축제, 역사와 상생 메시지 담아 고품격 서막 연다



내일부터 매화마을 일원서

광양시가 8일 오전 10시,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꽃축제인 제21회 광양매화축제의 특별한 서막을 연다고 밝혔다.

광양, 구례, 하동 3개 시군의 영호남 화합행사를 개막식으로 대체하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인화 국회의원, 정현복 광양시장과 김승호 구례군수, 윤상기 하동군수를 비롯한 지역민 200여 명이 함께 참여한다.

매화꽃 천국, 여기는 광양이라는 슬로건으로 8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광양매화축제는 개막선언에

앞서 '차(茶)와 율화매(輪回梅)의 만남', 광양시립합창단 공연 등 은은하고 향기로운 프로그램으로 오감을 연다.

율화매(輪回梅)는 조선시대 이덕무 선생이 잠시 피었다 지는 매화를 밀랍으로 만들어 차(茶)와 함께 사시절 감상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꽃은 밀랍이 되고 밀랍은 다시 꽃이 되는 율화를 상징하며, 매화문화관에서 차와 율화매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광양, 구례, 하동 3개 시군 어린이들이 완성할 구구소한도(九九消寒圖) 퍼포먼스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구소한도는 선조들이 동지(冬

至)로부터 9일을 단위로 9번의 추위가 지나면 봄이 온다는 뜻으로 81송이 매화를 하루 한 송이씩 칠해가던 소망과 기다림의 미학으로, 꿈을 상징하는 어린이들이 완성할 구구소한도는 진정한 봄의 선언이다.

축제를 널리 알리고 동참을 권유하는 다압면 풍물단의 흥겨운 김놀이로 축제가 고조되는 가운데 '어린이 방류'를 위해 섬진나무터로 이동한다.

모전회귀성(母回歸性)을 가진 언어를 3개 시군의 참석자들이 함께 방류하는 것은 남도의 젓줄 섬진강의 생태와 미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고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을 이어가는 길이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몸짓으로 구구소한도가 완성되고 고사리 손에서 생의 자유를 얻은 어린이 연인들이 다시 섬진강으로 돌아오길 고대하는 마음은 봄이 가장 먼저 오는 도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젊은 도시 광양의 밝은 미래다.

이화협 관광과장은 "문화(文香)와 매향(梅香)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두루 담은 고품격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태동의 도시 광양의 매력을 한껏 만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상수도 스마트워터시티(SWC) 사업 조기 도입

정보통신기술 이용해 과학적으로 관리



순천시는 수도물 공급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을 추진한다.

총 5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올해 착수해 2022년까지 완료예정이며, 금년엔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스마트워터시티(SWC) 사업'은

취수원에서부터 정수장, 급·배수관,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수도물 공급의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기술(CT)을 적용하여 상수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정수장에서는 응집·소독 등 정수생선의 모든 공정을 감시·제어하고, 급·배수관에서는 관망 블록화 체계를 구축하여 수량과 수질, 수질 누수상황을 원격으로 통제한다.

그리고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물의 수질정보를 시민에게 전관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 사업을 위해 구축되는 기반시설은 상수도관망 운영관리 시스템 개선과, 수질측정기, 수질전광판, 누수감시센서, 제염소설비, 자동이동 밸브 등이다.

2018년 6월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실시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며 올해안에 시민들이 전관관을 통해 가정에 공급되는 수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수도물 공급 과정에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도입해 시민들의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황경석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장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